학생용 독서 활동지(중학생)

수상한 중학생들의 착한연대

청소년성장소설 십대들의 힐링캠프, 인권(인권위원회)

박기복 글 / 행복한나무 / 167쪽

☞주제어 : #인권 #연대 #착한연대 #연민 #인권침해
☞분 류 : 문학 > 한국문학 > 청소년소설

	중학교 학년 반 번
이 름	

구 성

활동	수업	활동 제목	세부 내용
읽기 전 활동	1차시	•책과 만난 첫인상 •검색은 나의 힘	• 책 표지를 살피며 감정과 생각을 떠올린다. • 검색을 통해 필요한 배경지식을 미리 쌓는다.
	2차시	•거침없이 쓰기	• 소설의 핵심 상징에 대한 생각을 미리 해 본다. • 거침없이 쓰기를 통해 글쓰기 솜씨를 키운다.
참고자료	책과 친해지는 습관		
읽기 중 활동	3차시 4차시 5차시	• 줄거리 정리하기 • 잠깐 멈춤! 생각! • 옮겨 쓰고 낭독하기	• 사건과 감정/생각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정리한다. • 지금까지 읽은 내용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 본문 일부를 옮겨 쓰고 낭독하며 책의 맛을 느낀다.
읽기 후 활동	6차시	• 내용 이해하기 • 나와 연결하기 • 타인 이해하기	• 다양한 활동을 통해 책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한다.
	7차시	• 토론하기	• 책에서 뽑은 주제로 토론한다. • 존중의 마음으로 토론하고, 새로운 배움을 얻는다.
	8차시	• 생각 확장하기	• 책의 주제의식을 깊이 있게 탐구한다.
참고자료	독후감을 쉽게 쓰는 방법		
독후감 쓰기	9차시	• 독후감 쓰기 준비 • 독후감 쓰기	• 편하고 쉽게 독후감을 쓰는 요령을 익힌다.
	10차시	• 독후감 공유하기	• 독후감을 공유하며 생각의 폭을 넓힌다.

한 학기 한 권 읽기	1 차시

수상한 중학생들의 착한연대

십대들의 힐링캠프, 인권(인권위원회)

반 번

이름 :

활동 ①

책과 만난 첫인상

표지는 책의 얼굴입니다. 사람의 얼굴에 많은 의미가 담겼듯이 책 표지에도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책과 얼굴을 맞대고 표지를 살피는 데서 독서가 시작됩니다.

1. [앞표지] 오른쪽에 있는 여학생은 왜 우산을 쓰지 않고 함께 비를 맞고 있을까요?

_____

_____

2. [앞표지] 구름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_____

_____

3. [뒤표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권리 위에서 자는 사람인가요, 깨어 있는 사람인가요?

_____

_____

검색은 나의 힘

소설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쌓으면 책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아래 단어로 검색해서 알게 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세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급식조리사파업

한 학기 한 권 읽기	2 차시	수상한 중학생들의 착한연대 십대들의 힐링캠프, 인권(인권위원회)	반 번 이름 :	활동 ②

거침없이 쓰기

깊이 고민하지 말고, 잘 쓰겠다는 목표도 버리고, 주제어를 떠올리며 손이 가는 대로 빠르게 씁니다. 루드비히 보른은 '사흘 안에 독창적인 작가가 되는 법'이란 글에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거침없이 풀어놓으면 훌륭한 글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의식보다 무의식이 훨씬 깊고, 풍부하며, 창의성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으로 쓴 글은 솔직하며, 솔직한 글이 좋은 글입니다.

○ 주제어를 보고 글을 쓰기 전에 1분 이내로 잠깐만 생각합니다.
○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씁니다. 최대한 빨리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 글을 쓰는 도중에 앞부분에 무엇을 썼는지 절대 읽지 않습니다.
○ 다 쓰고 나면 걸린 시간을 적습니다.
○ 빠르게 쓰되 글씨는 또박또박 알아보게 씁니다.
○ 다 쓰고 나면 함께 읽으며 공유합니다. 공유할 때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소설에서 '**타인의 고통**'은 이야기를 이끄는 핵심 요소입니다. 누구나 고통을 겪으며, 타인의 고통을 본 적도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 타인의 고통에 대한 경험담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 주제어 : 고통 경험담 걸린 시간 : ___분 ____초

100

220

책과 친해지는 습관

● **한 달에 한 권은 책을 삽니다.**

책을 사려면 책을 살펴야 하고, 좋은 책을 고르다 보면 책을 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돈을 들이면 그만큼 애정이 가고, 책꽂이에 꽂아두면 나중에라도 읽게 됩니다. 책과 친해지는 으뜸 방법은 책을 사는 것입니다.

● **책으로 하루를 열고 마감합니다.**

'아침10분독서'가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는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자기 전에 책을 읽으면 뇌파가 안정되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휴대전화가 아니라 책으로 아침을 열고, 하루를 닫으세요.

● **책에 흔적을 남기며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책을 읽을 때 그들이 읽는 책은 정말 같은 책일까?"(미하엘 엔데/모모 작가)
같은 책을 읽어도 인상 깊은 부분, 배운 점, 느낀 점이 다 다르기에 실제로는 저마다 다른 책을 읽는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책을 읽을 때는 밑줄을 긋고 메모하면서 책과 대화를 나누세요. 그러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책이 탄생합니다.

● **읽기를 멈추고 골똘히 생각합니다.**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공자)
아무리 좋은 책도 자기 생각을 거치지 않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진짜 자기 것이 되지 못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자여, 그대 이름은 바보!'란 말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바보 같은 사람이 됩니다. 책을 읽는 중간 중간에 잠시 멈추고, 읽은 내용을 골똘히 생각해 보세요.

● **하루에 한 번은 낭독합니다.**

낭독은 책 읽는 재미를 키우고, 뇌를 풍성하게 자극하며, 기억을 촉진하고, 집중력을 높이며, 감정 표현력을 키웁니다. 또한 읽기 능력이 향상되고, 발음이 좋아지며, 독해력과 글쓰기 실력도 길러집니다. 옛 선비들은 낭독을 핵심 공부법으로 삼았습니다. 책을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책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출처 : 『청소년독서콘서트』(박기복/행복한나무)

한 학기 한 권 읽기	3 차시

수상한 중학생들의 착한연대

십대들의 힐링캠프, 인권(인권위원회)

반 번

이름 :

활동 ①

줄거리 정리하기

소설을 이해하려면 먼저 줄거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줄거리를 정리하라고 하면 올챙이처럼 앞부분만 자세히 쓰고 뒷부분은 대충 마무리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당한 양으로 충실하게 이야기를 정리하면 책을 이해하는 힘이 저절로 길러집니다. 줄거리를 잘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건을 인과관계에 맞게 기록합니다. 둘째, 등장인물의 생각과 감정이 나타나고 변화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사건, 감정, 생각을 적절하게 결합하면 줄거리가 됩니다.

구분	핵심 사건	채원이의 핵심 감정 / 생각
01. 봄인데 봄이 아니다		
02. 움직이는 마네킹		
03. 자원봉사상 그 달콤한 유혹		
04. 메아리 없는 외침		

잠깐 멈춤! 생각!

멈추고, 생각하기는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고, 인물들을 머리에 그려보기도 하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도 상상해 보세요. 책에서 읽은 문장을 그대로 떠올려도 좋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질문도 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안에 떠오른 **생각, 느낌, 고민, 질문 등을 적으세요.**

옮겨 쓰고 낭독하기

이제까지 읽은 대목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또박또박 옮겨 적습니다.
다 적은 뒤에는 소리 내어 읽습니다.

잠깐! 고민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 은지 : “내 편인 척하지 마!”
> 채원 : “사람을 그렇게 못 믿니?”
> 은지 : “나는 사람을 믿지 않아. 아무도!”
> 채원 : “엄마 아빠도?”
> 은지 : “못 들었니? ‘아무도’라고 했잖아.” - 79~80쪽

한 학기 한 권 읽기	4 차시

수상한 중학생들의 착한연대

십대들의 힐링캠프, 인권(인권위원회)

반 번

이름 :

활동 ②

줄거리 정리하기

소설을 이해하려면 먼저 줄거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줄거리를 정리하라고 하면 올챙이처럼 앞부분만 자세히 쓰고 뒷부분은 대충 마무리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당한 양으로 충실하게 이야기를 정리하면 책을 이해하는 힘이 저절로 길러집니다. 줄거리를 잘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건을 인과관계에 맞게 기록합니다. 둘째, 등장인물의 생각과 감정이 나타나고 변화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사건, 감정, 생각을 적절하게 결합하면 줄거리가 됩니다.

구분	핵심 사건	채원이의 핵심 감정 / 생각
05. 난 불쌍한 사람이 아니야		
06. 타인의 고통		
07. 국가인권 위원회		
08. 외로운 자리에서		

잠깐 멈춤! 생각!

멈추고, 생각하기는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고, 인물들을 머리에 그려보기도 하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도 상상해 보세요. 책에서 읽은 문장을 그대로 떠올려도 좋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질문도 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안에 떠오른 **생각, 느낌, 고민, 질문 등을 적으세요.**

옮겨 쓰고 낭독하기

이제까지 읽은 대목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또박또박 옮겨 적습니다. 다 적은 뒤에는 소리 내어 읽습니다.

잠깐! 고민

은지는 왜 도움을 주겠다는 말에 발끈했을까요? 왜 동정심을 받는 대상이 되자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맞아. 처음에는 쌤이 부탁해서 한 거야.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냥 너를 돕고 싶어서……."
"그만해!"
서은지가 큰 소리로 말했따. 애들과 싸울 때도 흔들림 없던 목소리가 처음으로 톤이 높아졌다.
"내가 거지야? 내가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야?"
아무래도 '도움'이라는 단어가 은지를 자극한 듯했다. - 90쪽 -

… 그렇지만 은지는 전학을 완강하게 거부했고, 은지 부모는 기도로 이겨 내겠다며 버텼다. 그러다 은지가 마음을 바꾼 사건이 벌어졌다. 은지에게 따로 접근해서 대놓고 동정심을 드러내며 도와주겠다는 학부모들 때문이었다. 은지는 그것이 가장 괴로웠다. 동정심을 받는 대상이 되자 더는 견디기 어려웠다. - 114쪽 -

한 학기 한 권 읽기	5 차시

수상한 중학생들의 착한연대

십대들의 힐링캠프, 인권(인권위원회)

반 번

이름 :

활동 ③

줄거리 정리하기

소설을 이해하려면 먼저 줄거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줄거리를 정리하라고 하면 올챙이처럼 앞부분만 자세히 쓰고 뒷부분은 대충 마무리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당한 양으로 충실하게 이야기를 정리하면 책을 이해하는 힘이 저절로 길러집니다. 줄거리를 잘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건을 인과관계에 맞게 기록합니다. 둘째, 등장인물의 생각과 감정이 나타나고 변화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사건, 감정, 생각을 적절하게 결합하면 줄거리가 됩니다.

구분	핵심 사건	채원이의 핵심 감정 / 생각
09. 텅 빈 서명용지		
10. 급식실 앞 새로운 줄		
11. 내 문제 우리 문제		
에필로그4. 비 오는 날		

잠깐 멈춤! 생각!

멈추고, 생각하기는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고, 인물들을 머리에 그려보기도 하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도 상상해 보세요. 책에서 읽은 문장을 그대로 떠올려도 좋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질문도 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안에 떠오른 **생각, 느낌, 고민, 질문 등을 적으세요.**

옮겨 쓰고 낭독하기

이제까지 읽은 대목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또박또박 옮겨 적습니다.
다 적은 뒤에는 소리 내어 읽습니다.

잠깐! 고민

심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억울한 사람(나와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을 돕기 위해 나설 수 있나요?

> "괜찮겠어? 이래저래 손해를 많이 볼 텐데. 기말고사 준비나 전학을 위한 공부에도 방해가 될 거야. 너희 담임 쌤 말로는 자원봉사상도 추천해 주려고 했다던데, 어쩌면 그 상도 날아갈지 몰라. 그 학교와 마찰이 생기고 선생님들이 너를 안 좋게 보게 될 위험도 있지. 이런 경우는 상상하기 싫지만, 그것 때문에 네 진학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남을 위험도 있어." - 134쪽 -

한 학기 한 권 읽기	6 차시	수상한 중학생들의 착한연대 십대들의 힐링캠프, 인권(인권위원회)	반 번 이름 :	활동 ①

생각 확장하기

【질문1】 동정심이 어떤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까요?

> 노랫말 속 '너'가 은지가 되어 내 심장을 후벼 팠다. 은지가 왜 그렇게 나를 경계했는지, 왜 내게 값싼 동정심 따위는 싫다고 했는지 절절하게 다가왔다. 은지가 전학 온 첫날, 내가 처음 만났던 은지는 봄이 아니었다. 그 누구보다 깊은 상처를 입고 뼛속까지 얼어붙은 빙하였다. 무수한 칼자국에 흘린 피마저 얼어붙은 빙하를 값싼 동정심으로 녹이려 했으니, 내가 어리석었다. 아니 나는 은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입힌 가해자였다. 값싼 동정심을 쏟아내며 착한 척했던 그 학부모들처럼.
>
> - 115쪽 -

【질문2】 고통스런 사연을 소개하며 기부를 요청하는 광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3】 국가인권위원회에 억울한 '은지 인권 침해 사건'을 진정하는 서명용지입니다.
자신의 이름, 소속을 적은 뒤에 의견란을 채워주세요.

구분	이름	소속	의견란
1	박채원	늘품중학교 3학년 1반	은지가 당한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2	서은지	늘품중학교 3학년 1반	이건 제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문제입니다.
3			

나와 연결하기

【활동1】 급식 조리원이 파업해서 내가 급식을 못 먹고 빵을 먹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은 급식 조리원의 파업을 지지하겠습니까?

> "들었어? 파업한대."
> "파업? 누가?"
> "급식실 조리원 아주머니들 있잖아. 파업한다고."
> "아니, 그러면 파업하는 동안에는 맛있는 급식을 못 먹는 거야?"
> "당연하지. 빵이나 도시락을 대신 준다는데?"
> "아, 안 돼!"
> 급식 조리사 분들이 파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학교가 떠들썩했다. 특히 우리 학교 급식은 가장 큰 자랑이자 기쁨이기 때문에 충격은 더 컸다. 애들은 별 생각 없이 불만을 쏟아 냈다. 파업을 하면 어떡하냐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 176쪽 -

◑생각+ 장애인이동권을 요구하며 장애인들이 시위를 벌이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택배노동자가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파업을 해서 택배가 늦게 도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시위 때문에 도로 교통이 막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들의 주장과 싸움을 지지할 수 있나요?

【활동2】 감은 해에게서 받은 햇살을 어떻게 나눌까요?

> 아빠는 툇마루에 앉아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시골 풍경에 젖어 들었다. 구불구불하게 자란 감나무에는 아직 따지 않은 굵은 감들이 주렁주렁 달려서 붉게 빛났다. 해는 감나무에도 골고루 햇살을 나누어주었다.
> 문득 그런 의문이 들었다.
> '감은 해에게서 받은 햇살을 어떻게 나눌까?' - 180쪽 -

◑생각+ 여러분은 자신이 받은 햇살을 다른 사람과 기꺼이(!) 나누고 있나요?

한 학기 한 권 읽기	7 차시	수상한 중학생들의 착한연대 십대들의 힐링캠프, 인권(인권위원회)	반 번 이름 :	활동 ②

토론하기

【토론주제①】 교장 선생님이 내 건 보상을 바라고 한 기부는 착한 일이었을까요?

> |프롤로그① | 그것은 착한 일이었을까요?
> ……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기부 열풍이 엄청나게 불었다. 아무리 기부에 담긴 의미를 강조해도 꿈쩍도 않던 애들이, 교장 선생님이 각 학년에서 기부를 가장 많이 한 반에 피자를 쏘겠다고 약속하자 미친 듯이 기부 행렬에 동참했다. …… 은지로 인해 내 기억은 그날로 돌아갔고, 그 전까지 생각지도 않았던 의문이 싹텄다. 그때 우리 반이 한 기부는 착한 일이었을까? 선생님 가르침처럼 남도 좋고 나도 좋은 선한 실천이었을까?
> 출처 : 9~11쪽

■ 내 주장의 근거

■ 친구들의 근거

나와 같은 주장인 친구들의 근거	나와 다른 주장인 친구들이 제시한 근거

■ 토론을 마치고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토론주제②】 채원이가 희경이에게 한 앙갚음은 정당한가요?

|프롤로그② | 내 앙갚음은 정당했을까?

피자가 처음이라면 둘째는 전희경이었다. 희경이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가깝게 지낸 친구였다. …… 희경이가 준 선물은 소박하다는 말로는 모자랐다. 한마디로 성의가 없었다. …… 그러나 내 생일이 되자 희경이는 또다시 허접한 선물을 성의 없이 주었다. 나는 무척 소강하고 억울했다. …… 어느 날 희경이가 칭찬해 주고는 "기준 좋지? 내가 기분 좋게 해주었으니까, 떡볶이 사 줘." 하는데 기분이 정말 나빴다. …… 나도 무척 배가 고팠지만 끝까지 모른 척했다. …… 오후 5시까지 놀다가 희경이는 떠났고, 나는 끝까지 밥을 같이 먹지 않았다. 밥을 먹으면 또다시 내가 돈을 낼 게 뻔했기 때문이다. ……

은지로 인해 나는 희경이를 향한 내 서운함이 정당한 감정이었는지 확신하지 못하게 됐다. 그 당시에는 통쾌하게만 했던 복수가 우정을 저버린 부당한 행동처럼 느껴져 혼란스러웠다. 과연 희경이와 내가 나누었던 우정에 금이 간 책임이 희경이에게만 있을까? 내 서운함과 앙갚음은 정당했을까?

출처 : 9~11쪽

■ 내 주장의 근거

■ 친구들의 근거

나와 같은 주장인 친구들의 근거	나와 다른 주장인 친구들이 제시한 근거

■ 토론을 마치고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수상한 중학생들의 착한연대

십대들의 힐링캠프, 인권(인권위원회)

반 번

이름 :

활동 ③

생각 확장하기

【질문1】 왜 채원이는 돕는 이유를 묻는 선생님의 질문을 받고, 피자를 얻기 위해 벌인 기부 경쟁과 희경이와 얽힌 선물 사건을 떠올렸을까요?

> "너도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손해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거야. 그런데도 나서는 이유가 뭐야? 그 수많은 손해를 감수하고서 내 절친도 아닌 은지를 도우려고 나서는 이유가 뭔지 쌤은 그게 궁금해."
>
> 담임 선생님이 다른 사람 말은 안 믿고 은지 말만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답하려다 집어삼켰던 답변이 다시 떠올랐다. 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답변이었지만 나는 그 대답에 자신이 없었다. 해놓고 뒷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다른 답변을 찾으려고 고민할 때 문득 기억 저편에서 떠오른 생각이 바로 초등학생 때 피자를 얻기 위해 벌인 기부 경쟁이었고, 희경이와 얽힌 선물 사건이었다.
>
> 피자를 먹기 위해 한 기부, 옆 반을 이기기 위해 한 기부는 과연 선한 행동이었을까? 어쨌든 도움을 주었으니 좋다고 봐야 할까, 아니면 참된 의미는 모른 채 경쟁에만 몰두해서 벌인 선행이었기에 도리어 나쁘다고 봐야 할까? 희경이는 자기만 생각하는 친구였다. 그렇다면 나는 어땠을까? 나는 희경이에게 선물을 줄 때, 맛있는 간식을 사 줄 때 사심이 전혀 없었을까? 순수하게 좋은 마음으로만 사 주었을까?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싶어서 비싸고 정성스런 선물을 했다면 왜 희경이가 준 선물을 받고는 그렇게 실망했을까? 혹시 나는 그 선물을 거래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
> - 본문 134~135쪽 -

【질문2】 여러분은 '집안일을 책임지고' 있나요? 아니면 단지 '집안일을 돕고' 있나요.

> "아빠는 집안일을 돕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집안일을 돕는다는 말에는 아빠는 집안일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있거든. 아빠가 집안일을 돕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집안일은 누구 책임이라는 걸까? 아마도 엄마가 책임지는 사람임을 암시하는 말이겠지? 아빠는 엄마만 집안일을 책임지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 집안일은 가족 모두에게 책임이 있어. 그런 점에서 우리 채원이는 조금 무책임한 편이야. 그치? 공부 핑계로 집안일도 별로 안 하고, 어쩌다 집안일을 할 때도 도와줬다고 생색내니까."
>
> - 175쪽 -

【질문3】 왜 참된 도움은 함께 비를 맞는 것일까요?

친구들과도 점점 소원해졌다. 은지는 여전히 찬바람을 일으키며 지나갔다. 짝꿍이었지만 대화는 없었다.	시험기간이 다가왔다.	쓸쓸하고 외로운 날들이었다. 은지도 이럴까? - 158쪽 -

참된 도움은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 182쪽 -

【질문4】 여러분은 '**나쁜 짓**'을 하고 있나요?

우리들 바로 옆에 또 다른 은지가 있었다. 우리 곁에 내가 모른 채 지나갔던 은지들이 얼마나 많았던 걸까? 내가 누리는 혜택이 누가 희생한 결과라면 그것은 **나쁜 짓**이다. 그 사실을 몰랐다 해도 **나쁜 짓**을 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 본문 177쪽 -	연민은 종종 우리의 무능력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고함까지도 증명해주는 알리바이가 되어 버린다. 「타인의 고통」_수전 손택 - 본문 8쪽 -

※ 참고자료

『타인의 고통』(수전 손택)

타인의 고통에 개입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발하는 책. 『타인의 고통』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관련돼 있다. 책 속에서 고통스런 표정을 지어가며 죽어가는 이들과 그것을 즐기거나 혹은 두려워하며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책장을 넘기고 있는 사람들. 사람들은 사진 속 대상자들이 겪었을 고통의 깊이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다만 바라볼 뿐이므로 실감은 하지 못한다. 저자가 보기에, 잔인한 사진은 '타인의 고통'을 연민의 대상임과 동시에 화려한 '즐길 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참상은 연민이 되고, 연대의 가능성은 사라지게 된다. - 출처 : YES24

독후감을 쉽게 쓰는 방법

흔히 독후감은 '동기-줄거리-감상', 또는 '요약-인상 깊은 장면-경험•감상'과 같은 형식으로 씁니다. 이런 형식으로만 쓰니 독후감이 딱딱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창의적인 형식'을 택하면 독후감 쓰기도 쉽고, 내용도 신선합니다. 독후감을 쓸 때는 1)형식을 택하고, 2)형식에 맞는 준비를 한 다음, 3)핵심 요령을 기억하면서 거침없이 쓰면 됩니다. 초고를 쓴 뒤에는 쭉 읽으면서 부드럽게 고치기만 하면 독후감이 완성됩니다.

형식선택	준비항목	독후감을 쓰는 핵심요령
□편지쓰기	①편지를 받을 대상 설정 ②편지에 다룰 책 내용 선택 ③편지로 전하고 싶은 말	• 편지 쓰기 형식에 맞춰서 쓴다. (모르면 조사하기) • 책의 중심 내용과 관련된 생각과 감정을 담는다.(신변잡기X)
□인터뷰	①인터뷰 대상 설정 ②질문을 다양하게 준비 ③답변 생각해 보기	• 여는 글 : 인물을 간단하게 소개하거나 인터뷰 취지를 쓴다. • 인터뷰 : 실제 인물이 답하듯이 쓴다.(역지사지) • 닫는 글 : 인터뷰 내용 정리, 감상, 생각 등을 정리한다.
□생활글	①경험을 떠올리게 한 내용 ②책과 연결된 자기 경험 ③경험과 독서로 깨달은 점	• 책 내용을 소개하면서 자기 경험과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 자기 경험을 실감나게 소개한다. • 소설과 비슷한 점을 거론하며 깨닫고 느낀 점을 제시한다.
□기행문	①경험할 장소나 상황 선택 ②나라면 어떨지 생각 ③경험으로 배우고 느낀 점	• 기행문 형식에 맞춰 쓴다. (모르면 조사하기) • 내가 소설 속 장소를 방문하거나, 상황에 처하는 것처럼 설정하고 흥미진진하게 서술한다.
□신문기사	①책에서 다를 사건 선택 ②사건을 기사처럼 정리 ③사건을 평가하는 관점	• 기사를 쓰는 형식에 맞춰 쓴다. (모르면 조사하기) • 사건소개, 인터뷰, 사건에 대한 평가를 적절히 섞어서 쓴다. • 기사처럼 제목을 붙인다.
□인물분석	①인물의 특성을 정리 ②평가할 행동이나 선택 정리 ③나의 평가 준비	• 평가할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한다. • 일정한 기준으로 긍정과 부정을 가르는 것이 평가이므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물의 행동이나 선택, 사고방식 등을 다룬다.
□한 문장	①좋은 문장 하나만 선택 ②문장이 나온 배경 정리 ③문장에서 얻은 배움 정리	• 그 문장이 나온 맥락을 소개한다. • 한 문장이 내게 끼친 영향, 깨달음, 느낀 점 등을 개인의 경험과 연관지어 자세히 서술한다.
□토론	①토론 주제 뽑아내기 ②토론주제가 나온 상황 정리 ③내 의견 정리	• 토론주제가 나온 상황을 정리한다. • 자기 의견을 선택한 근거를 제시하며 주장한다. • 반드시 반대 의견을 다룬다.(반론과 재반론 형식으로)
□시사문제	①책과 연결된 시사문제 선택 ②시사문제 정리 ③시사문제 평가 또는 분석	• 책 내용과 시사문제를 적절하게 섞어서 소개한다. • 책에서 수립한 관점을 바탕으로 현 사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서평	①소개할 대상 선정 ②책의 매력 정리 ③꼭 읽어야 할 이유 정리	• 서평은 책 소개글이므로 소개할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 •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 좋을지 설명한다. • 책이 지닌 매력과 책을 권하는 이유를 제시한다.

※ 자세한 설명 및 실제 독후감 예시는 『청소년 독서콘서트』(박기복/행복한나무) 참조

한 학기 한 권 읽기	9 차시

수상한 중학생들의 착한연대

십대들의 힐링캠프, 인권(인권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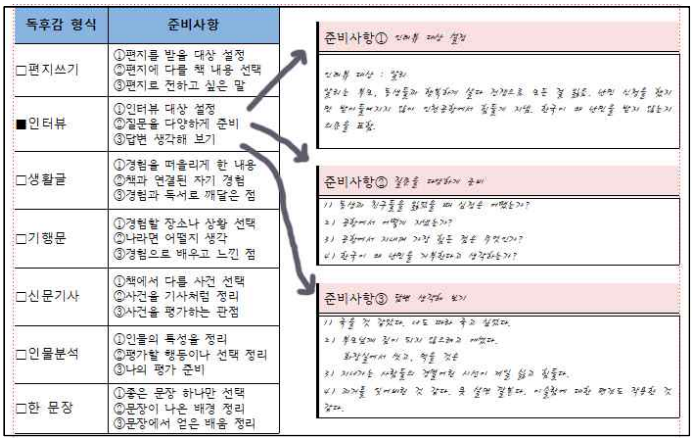
반 번

이름 :

①

독후감 쓰기 준비

1단계 : 자신이 원하는 독후감 형식을 선택합니다.
2단계 : 선택한 독후감 형식의 준비사항①~③을 오른쪽 '준비사항①,②,③'에 각각 적습니다.
3단계 : 독후감에 적을 세부 내용을 각 준비사항에 맞게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독후감 형식	준비사항
□편지쓰기	①편지를 받을 대상 설정 ②편지에 다룰 책 내용 선택 ③편지로 전하고 싶은 말
□인터뷰	①인터뷰 대상 설정 ②질문을 다양하게 준비 ③답변 생각해 보기
□생활글	①경험을 떠올리게 한 내용 ②책과 연결된 자기 경험 ③경험과 독서로 깨달은 점
□기행문	①경험할 장소나 상황 선택 ②나라면 어떨지 생각 ③경험으로 배우고 느낀 점
□신문기사	①책에서 다룰 사건 선택 ②사건을 기사처럼 정리 ③사건을 평가하는 관점
□인물분석	①인물의 특성을 정리 ②평가할 행동이나 선택 정리 ③나의 평가 준비
□한 문장	①좋은 문장 하나만 선택 ②문장이 나온 배경 정리 ③문장에서 얻은 배움 정리
□토론	①토론 주제 뽑아내기 ②토론주제가 나온 상황 정리 ③내 의견 정리
□시사문제	①책과 연결된 시사문제 선택 ②시사문제 정리 ③시사문제 평가 또는 분석
□서평	①소개할 대상 선정 ②책의 매력 정리 ③꼭 읽어야 할 이유 정리

준비사항①

준비사항②

준비사항③

독후감 쓰기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준비한 걸 참고하여, 손이 가는 대로 거침없이 씁니다.

※더 길게 써도 좋습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	10 차시	수상한 중학생들의 착한연대 십대들의 힐링캠프, 인권(인권위원회)	반 번 이름 :	②

독후감 공유하기

※ 독후감을 공유할 때는 평가를 하지 말고 **독자로서 반응**해주세요.
글을 공유하며 서로가 지닌 생각과 느낌에 공감하고,
나와 친구가 함께 발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합니다.

1. 내가 쓴 독후감을 읽은 친구들의 반응을 적습니다.

친구이름	친구가 해준 말

2. 친구들이 쓴 독후감을 읽고 돋보이는 점을 찾습니다.

친구이름	친구가 해준 말

3.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드는 생각, 느낌을 적습니다.

※책과 친구가 되면 인생이 풍요롭게 가꿀 수 있습니다.

행복한나무 출판사

※ 청소년 성장소설 [십대들의 힐링캠프]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시리즈입니다.

청소년들이 꿈을 위해서, 지금은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꿈, 진로, 관계, 사랑, 우정 등을 키워드로 한 <성장소설>부터 과학, 신화 등의 <지식소설>도 담고 있습니다. 동학, 대장간 소녀, 소년 독립군 등의 주제를 통해 <역사소설>을 만날 수 있고,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등을 통해 <인권소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인 수학을 쉽게 읽을 수 있는 <수학소설>도 있습니다.